



한국어는 밥벌이다

한국어를 무기로 외화벌이 하러 나가자 - 왕초보용 가이드

PART 0

인트로: 이 핸드북에 시력 소비 전 장착할 것들

사노님 | 문과졸업생의 잘먹고사니즘

포스타입 채널 멤버십 전용

시작하기 전에 — 사노의 노트

“한국어는 밥벌이다... 이제 스펙 쌓느라 기회비용 그만 들이자...문송들이 더 이상 기회비용 들이지 않고 내가 이미 장착한 최고의 무기! ‘한국어’라는 희귀 언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우리는 한국어 네이티브다...”

그렇게 2024년 초부터 포스타입 채널 "문과졸업생의 잘먹고사니즘"에 한국어 이용해서 외화벌이 하러 나가자, 밥 먹고 사니즘 해결 방안 포스트만 150개 (이것도 추정임...더 많겠죠) 넘게 쓴 것 같아요.

AI 말고 제 열 손가락으로 기본 5000자, 커피 2잔 수혈하며 😊 꾸준히 올렸죠. 그렇게 쌓인 포스트를 클로드에게 모아 썰어 달라고 하여 나온 핸디용 전자책입니다.

제가 쓴 포스트를 그대로 정돈만 하여 옮긴 게 아니라 그 원료들 (제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진짜’ 경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진짜’ 품앗이) 토대로 클로드에게 리서치를 맡겼어요. 세미나와 교차하며 팩트 체크에 신경 썼지만 AI가 그렇듯... 서술한 내용에 오류가 없을 순 없을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외화 벌이하러 비행기 타러 나갈(혹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리모트로 근무 가능하오), 달려 채굴용 연장 드신 멤버분들 꼭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돈 벌 수 있는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자, 아래부터는 클로드(제 하이드)가 재구성하여 하이드의 언어로 써내려 갑니다. 중간중간 사노도 끼들 순 있어요.

시작해볼까요?

레드 썬!



채용 공고 분석, 구독자님들과의 모의 면접, 실제 인터뷰 후기 품앗이, 현직자 커피챗 사례까지 — 2년 넘게 손으로 뛰며 모은 콘텐츠들이에요. 그 원고들을 AI 어시스턴트 클로드(Claude)에게 넘겨 실제 잡 사이트(LinkedIn, Indeed, Glassdoor, Jobstreet)를 광범위하게 리서치하고 코리안 스피킹 채용 트렌드까지 더해 정리한 결과가 바로 이 핸디북입니다.

이 전자책에 대하여

이 전자책은 총 15개 파트로 나뉘어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업로드 됩니다.

자, 그럼 하이드와 함께 시작해 볼게요.

PART 0

마인드셋: 이 핸드북을 읽기 전에 장착할 것들

0-1. 누구를 위한 전자책인가

이 책을 읽으실 분은 "문송이"입니다. 문과졸업생의 잘 먹고사니즘을 활용하는 가상의 독자 페르소나예요. 인문사회과학 전공, 부족한 스킬 없음, 해외취업은 생각만 해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모르는 사람.

✔ 이 전자책이 필요한 사람

-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사학, 국문, 영문, 심리, 철학 등)
- 해외취업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
-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며 지원을 망설이는 분
- 아르바이트·파트타임·사이드잡 경험만 있다며 자신감을 잃은 분
- AI 트레이닝 리모트잡을 해봤거나 관심 있는 분
- 싱가포르 또는 말레이시아 취업을 막연하게 꿈꾸는 분

✘ 이 전자책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 이미 외국계 취업 2년 이상 경험자 (너무 기초적일 수 있어요)
- 영어에 자신있는 분
- 당장 취업보다 유학·이민을 목표로 하는 분

0-2. 한국어가 스킬인 이유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글로벌 채용 시장에 내놓을 "희귀 스킬셋"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일러 라쉬처럼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외국인이 있긴 하죠. 그런데 그건 예외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약 7,700만 명에 불과해요. 영어 화자 15억 명, 중국어 화자 11억 명과 비교하면 한국어는 상대적으로 "희귀한" 언어입니다. AI 음성 어시스턴트, 콘텐츠 검열, 언어 데이터 구축처럼 한국어 원어민이 필수인 일들이 빠르게 늘어났고 아직도 수요는 있습니다.

💡 원어민이 갖는 것 3가지

① 뉘앙스 — "갈애"와 "갈아"의 차이를 몸으로 안다

표준어와 사투리, 신조어와 은어, 존댓말 체계. 이걸 영어권 PM (*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② 문화적 맥락 — "비가 오면 국이 먹고 싶은" 심정을 안다

콘텐츠 검열에서 "이게 한국 문화에서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는 건 원어민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③ 신뢰도 — AI가 학습하려면 원어민의 검증이 필요하다

글로벌 빅테크가 한국어 AI 어시스턴트를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건 한국어 원어민의 "검수"입니다. 그게 당신 아닐까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 잘하지" ❌


vs

"한국어 실력을 실무에 이렇게 적용해봤다" ✅

리쿠르터는 당신이 한국인인지 알아요. 그걸 넘어서 "실무에서 한국어를 어떻게 써봤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 전자책 시리즈에서는 그 질문에 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0-3. 삼성·현대이 스펙이 없어도 괜찮은 이유

국내 취업 시장에서 스펙은 필터입니다. 학점, 출신 학교, 인턴 경력, 자격증. 그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면 서류조차 읽히지 않는다면... 해외 채용 시장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국내 채용	 외국계 채용
학교 이름을 봅니다	무슨 일을 해봤는지 봅니다
학점을 봅니다	영어로 업무상 소통 가능한지 봅니다
대기업 인턴 경험을 봅니다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지 봅니다
자격증 개수를 봅니다	파트타임·아르바이트도 당연히 경험입니다
스펙이 기준선을 넘어야 읽힙니다	스토리텔링이 핵심입니다

실제 구독자 사례 미리보기

◆ A님 — 카페 알바 경험으로 외국계 영어 면접 합격

"그냥 알바 경험인데 뭘..."이라고 생각했지만, 영어 스크립트로 정리하니 CS 스킬 + 글로벌 센서빌리티 경험이 되었습니다.

◆ 영상 편집 유튜버 B님 — 개인 프로젝트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 서류 통과

취미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경험이 콘텐츠 QA 포지션의 핵심 레주메 재료가 되었습니다.

◆ C님 — AI 트레이닝 파트타임 → 말레이시아 콘텐츠 모더레이터 정규직

집에서 편하게 하던 리모트 잡이 해외 취업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 K뷰티 인스타 운영 D님 — 개인 계정 운영 → 소셜미디어 마케팅 경험으로 활용

팔로워 수와 무관하게, 계정 운영 경험 자체가 마케팅 실무 경험이 됩니다.

헛된 경험은 없습니다. 단, 그 경험을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하이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0-4.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나요?

채널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예요. 하이디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전자책 시리즈에서 다룰 포지션들은 "어드밴스드 바이링귄" 수준의 영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업무 상 영어 가능 수준"을 요구하는 공고들이 타깃이예요. 저쪽에서도 우리의 영어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준비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영어 기준



- ✓ 간단한 영어로 이메일을 쓸 수 있다
- ✓ 화상 면접에서 최소 15분 가량 영어로 대화할 수 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 ✓ 업무 가이드라인을 영어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 외국인 동료에게 업무 상황을 간단한 영어로 설명할 수 있다

- ✗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말해야 한다 → 필수 아니예요
- ✗ 토익 900점 이상이어야 한다 → 관계없어요
- ✗ 문법이 완벽해야 한다 → 자신감이 더 중요합니다

말레이시아 KL의 경우 영어 요구 수준이 B2(유럽언어 기준) 정도예요. 일상적인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자신감이 유창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대답을 해도 또렷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과 웅얼거리는 사람의 인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PART 4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0-5. 싱가포르 vs 말레이시아, 어디로 가야 하나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타깃 시장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두 곳입니다.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KL)
채용 유형	인하우스 빅테크 및 소비재 중심	BPO 중심 (콘센트릭스·액센츄어 등)

연봉 수준 (* 엔트리 레벨 기준)	높음 (SGD 4,000~6,000+/월)	낮지만 생활비도 낮음 (RM 6,500~8,000/월)
물가·생활비	높음 (코로나 이후 집값 급등)	싱가포르 대비 1/3 수준
한국인 수요	있음 (빅테크 위주)	급증 중 (싱가포르 기업 이전 영향)
비자 난이도	EP 조건 매우 까다로움	스폰서 비자 비교적 쉬움
진입 난이도	높음	낮음 (엔트리 레벨 다수)
추천 대상	경력자 or 빅테크 목표	해외 취업 첫 도전자


주목할 변화가 있어요. 싱가포르의 물가와 집값이 코로나 이후 견잡을 수 없이 올랐습니다. 그 결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페낭 등으로 오피스를 이전하거나 새로 열고 있어요. Korean speaking 잡이 말레이시아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해외 취업이 처음이라면 말레이시아부터 노리는 게 현실적일 수 있어요. 비자 스폰서를 받기 쉽고, 엔트리 레벨 공고가 많으며, 생활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고요. 싱가포르는 경력을 쌓고 난 다음 단계로 노려볼 수 있어요.

0-6. 이 핸드북을 100% 활용하는 법

이 전자책은 15개 파트로 구성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시는 걸 권장하지만, 급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파트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각 파트는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전체 파트 구성 (순차 업로드 예정)

PART 0 마인드셋: 이 핸디북을 읽기 전에 장착할 것들  현재 파트

PART 1 직무 지도: 한국어 원어민이 비벼볼 수 있는 7가지 루트 → 다음 공개

PART 2 경험 만들기: 지원할 재료를 먼저 확보하자

PART 3 서류 전략: 레주메 & 지원

PART 4 면접 완전 정복: 트릭키 퀘스천까지

PART 5 구독자 사례: 그분들이 해냈다면 당신도

PART 6~15 추가 파트 순차 업로드 예정

나가는 말

PART 0는 여기까지예요. 마인드셋을 잡는 챕터다 보니 살짝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면 이 마인드셋이 흔들리는 순간이 꼭 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인데 써도 될까? 파트타임인데 경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데?" — 이 의심들은 모두 지금 잡아두셔야 해요.

다음 파트 예고

PART 1 —

직무 지도: 한국어 원어민이 비벼볼 수 있는 7가지 루트

AI·데이터부터 콘텐츠·Trust & Safety, 로컬라이제이션, 비즈니스·세일즈, 금융·컴플라이언스, CS·오퍼레이션, 프리랜서 플랫폼까지 — 실제 잡 사이트에서 확인된 채용공고 기반으로 한국어 원어민이 지원할 수 있는 직무 지도를 펼쳐드립니다. 난이도별, 위치별, 백그라운드별 추천 루트와 커리어 사다리까지 정리해드릴게요.

본 핸디북은 멤버십 *only* 업로드이며 개인 소장 부탁드립니다 

이 전자책은 총 15개 파트로 나눌 예정이며, 독자님들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도록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업로드 합니다.

채널: 포스타입 "문과졸업생의 잘먹고사니즘" | 문의 및 후기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